교육비·공공料↑… 서민가계 압박

광주지역 대학납입금 8.6%·택시요금 10% 치솟아

지난해 광주지역은 유치원 납입금, 보습학원비 등의 교육비와 채소, 육류 등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와 배추, 수박 등 채소류의 가격이 1년새 20% 이상 급등한데다 석유류,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등도 크게 치솟아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18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상승률 3.1%보다 0.9%p 하락한 것으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소폭 안정됐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비와 농축산물 등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4.6% 상승한 가운데 유치원 납입금과 보습학원비가 각각 10.5%, 10.3% 치솟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국공립 대학교·대학원의 납입금이 각각 8.6%, 8.8% 올랐으며, 독서실비(8.7%), 대입학원비(7.8%), 고입학원비(7.8%) 등이 크게 치솟아 수험생 학부모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채소와 육류의 가격이 급등했다. 채소의 경우 파가 56.5% 올라 단일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풋고추(24.3%), 수박(23.3%), 호박(21.2%), 배추(20.6%), 미나리(16.5%), 고구마(14.6%)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육류는 돼지고기가 7.4% 오른 가운데 국산·수입 쇠고기 가격이 각각 5.2%, 3.8% 상승했다. 마른멸치(14.4%), 마른오징어(13.9%), 조기(10.5%), 고등어(7.4%) 등의 어개류도 값이 크게 치솟았다. 반면 곡물의 경우 콩과 쌀이 각각 12.6%, 7.6%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으며, 달걀(-15.9%), 갈치(-13.6%), 오징어(-7.1%) 등 일부 품목은 1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수도·광열비의 가격 상승세도 뚜렷했다. 전반적인 석유류가 5.7% 오른 것을 비롯, 전철료(8.8%), 국제항공료(5.9%), 대리운전이용료(5.8%), 시내버스료(3.9%) 등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다. 또 남·여학생복이 각각 11.2%, 17.5% 올랐으며, 남자정장(14.8%), 여자바지(8.5%), 유아복(5.7%), 한복(5.5%) 등 의류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전남통계청 하상용 경제조사 담당관은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안정됐지만 교육물가와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면서 "올해도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이 예고돼 있어 물가 불안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롯데마트 월드컵점 개점

18일 문을 연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월드컵점을 찾은 고객들이 할인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전국 최대규모인 9천여평의 영업면적에 패션몰과 할인점이 접목된 복합 쇼핑몰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차에 과징금 230억 부과

공정위 "독과점 지위로 차값 인상"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하고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나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들이 판매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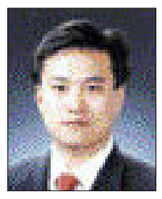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여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부과된 것중 지난 200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된 33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조사결과 현대차는 매년 국내 판매목표를 결정하고 각 지역본부를 통해 관할내 직영점과 대리점에 이를 할당했으며,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대리점에는 경고장 발송과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동원그룹 2세 경영 가속화

김재철회장 차남 상무 승진



동원그룹이 김재철 회장의 차남인 김남정(사진·34)씨를 임원으로 승진시켜 2세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동원산업에 입사한 뒤 2년 전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최근 경영지원실 상무로 승진했으며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도 겸직하게 됐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씨가 임원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경영수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상무는 동원F&B, 동원산업 등 총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식품 부문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7.23%(361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연합뉴스

터미널 유·스퀘어~신세계 연결 통로 개통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산)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간의 연결통로〈사진〉가 16일 개통돼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구 도착홈 부근의 상가지역이던 이곳은 730여평의 규모로 이번 공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택시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패밀리레스토랑·한식·중식·일식·곰탕·커피숍·헤어숍·아이스크림전문점·제과점 등이 단계별로 오픈할 예정이어서 유익한 생활공간이 기대된다. /이종태기자 jtlee@

수입수산물 검역 강화

내년 3월부터…외래 전염병 차단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수입수산물이 전염병에 감염돼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역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수산물에 의한 병원균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수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앞으로 전염성 병원균이 수입 수산물을 통해 국내 양식장 등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나 운반용기에 전염성 병원균이 묻어있는 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병원균이 발견되면 해양부는 해당 수입활어에 수입 금지나 반송, 소각 혹은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양부는 수입수산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만 검사해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수입된 중국산 치어가 전염병에 걸린 채로 소양강댐에 유입돼 잉어들이 대량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최근에도 낚시터나 양식장 등이 해외에서 치어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어가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 국내 양식장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아울러 해양부가 5년마다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한편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해양부가 이동제한, 격리, 살처분,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OC 확충 박차 가하겠다"

강 팔 문 신임 익산국토관리청장

"중앙부처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17일 부임한 강팔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52)은 "첫 지방 근무를 고향에서 하게 된 만큼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혈연·지연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연세대와 영국 버밍험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산학협동硏 개원 4돌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원장 박성수)이 지난 17일 개원 4주년을 맞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홍섭 광주·전남경총 회장,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 채동석 광주삼성전자 부사장, 이병화 광주시 정무부시장 외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강석진 CEO 컨설팅그룹 회장이 '최고로 강한 기업, 강한 조직문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종태기자 jtlee@